

回想의 詩

—Wordsworth의 自然觀 및 人生觀의 變貌—

朴 柄 熙
 英語英文學科
 (1981. 12. 30 접수)

〈요 약〉

Wordsworth는 동일한 素材를 여러 作品에 걸쳐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Lucy poems와 Matthew poems가 그 좋은 보기이다. 本 論文에서 分析한 “I wandered lonely...”, “Tintern Abbey Lines”, “Immortality Ode”, “Elegiac Stanzas” 이상 네 편의 詩는 모두 “回想된 情緒”를 詩의 素材 및 構成原理로 다룬 作品들이다. 이들 作品에는 모두 回想된 過去의 回想하는 現在의 두 時間이 共存한다. 이 중에서 “I wandered lonely...”는 그의 詩觀과 詩作過程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그의 詩世界를 이해하는 關鍵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作品이다.

本 論文에서 著자는 “I wandered lonely...”를 分析하여 回想의 詩의 意義를 규명하고, 同一한 主題—즉 喪失과 報償—를 다룬 나머지 세 작품에서 그의 自然觀과 人生觀의 變貌를 더듬어 보았다. “Tintern Abbey Lines”에서는 自然愛의 報償에 대한 信念이 지배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疑惑이 도사리고 있었다. “Immortality Ode”에서는 前生神話와 回想理論을 이용하여 그의 精神的 危機를 설명하는 데 보편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빛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詩의 unity를 부여하였다. 특히 “embers”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喪失한 vision과 自然觀의 회복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Elegiac Stanzas”에서는 이전의 vision을 부정하고 견인불발의 용기와 인내를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이들 작품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自然物의 이미지와 回想의 詩的 意義를 이해하는 것이다.

Poetry of Recollection

—Change in Wordsworth’s View of Man and Nature—

Park, Pyung Hui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Received December 30, 1981)

〈Abstract〉

In such cycles of poetical works as Lucy and Matthew poems, Wordsworth dealt with single subjects from various aspects. The four poems which I discussed in this paper, “I wandered lonely...”, “Tintern Abbey Lines”, “Immortality Ode”, and “Elegiac Stanzas”, all deal with “emotions recollected in tranquility.” In these poems are shown the two moments in time—the moment of actual observation and that of recollection. Especially the first poem is very important as a key to the understanding of Wordsworth’s poetic world in that it contains both his view of poetry and an explanation of the processes of his poetic composi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find out the significance of recollection in his poetry by analysing the poem about daffodils, and traced the change in his view of man and nature in the other

three poems which deals with the same subject, that is, the themes of loss and gain originating from his love of nature. In "Tintern Abbey Lines", we can find his firm belief in nature's recompense but there is a pervasive sense of perplexity underlying this apparent belief. In "Immortality Ode" Wordsworth used the theory of recollection from pre-existence in order to explain the nature of his spiritual crisis and to regain his love of nature. He used images of light quite consistently, explaining that his lost vision could be recovered from the "embers" lying within him. But in "Elegiac Stanzas" he denied his former vision and accepted "fortitude" and "cheerful patience" as his conditions of life. In conclusion, I could see that the proper understanding of his nature images and the significance of recollection was most important in understanding both his poetic world and the structure of his poems.

I. 序 論

Rene Wellek은 구라과의 浪漫主義를 하나의 coherent body로 보고, 그 共通要因으로서 想像力, 自然, 文體를 들고 있다.⁽¹⁾ 즉 浪漫主義 詩觀의 중심은 想像力 理論이며, 世界觀의 중심은 自然에 대한 태도에, 그리고 文體의 중심은 symbol과 myth의 사용에 있다 하였다. 그는 Wordsworth, Coleridge, Byron, Shelley, 그리고 Keats의 詩에서 위의 세 요소를 찾아내어 자신의 주장을 예증하였고, Wordsworth의 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In Wordsworth's conception of nature is a shift from something like animistic pantheism to a conception reconcilable with traditional Christianity. Nature is animated, alive, filled with God or the Spirit of the World; it is mysteriously present, it gives a discipline of fear and ministry of pleasure. Nature is also a language, a system of symbols.⁽²⁾

自然觀은 自然에 대한 詩人の 感情과 思想으로 표현된다. Wordsworth는 詩를 "自然과 人間의 이미지"라 했다.⁽³⁾ 이 말은 詩가 自然의 이미지 또는 人間의 이미지라는 뜻이 아니라, 自然과 人間의 關係 즉 自然과 人間의 力動的 相互作用의 表現이라는 뜻이다. 또한 그는 詩를 "a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이라 정의 했는데, 여기서 "feeling"은 自然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얻어지는 情緒反應이라는 위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 情

緒는 自然物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知覺對象인 自然은 '상징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Wordsworth는 또한 詩의 素材인 情緒는 靜寂속에서 回想되는 것이라 하여, 靜寂과 時間의 要素를 강조하였다. 回想은 지나간 時間을 記憶하여 現在 속에 살아있는 過去의 意味를 冥想하는 정신작용(mental process)이다. 自然이라는 空間이 時間과 연결될 때 과거의 自然에 대한 정서적 경향이 회상되고 人間の 內面意識에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여 연속성을 부여하게 된다.

Wordsworth의 詩에서 自然과 人間은 Frost나 기타 現代詩人들의 경우처럼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 'Tintern Abbey Lines'에서 그는 "自然은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自然에 대한 사랑과 명상이 어떤 無形의 값진 報償을 준다는 信念을 表現하였다.

本稿에서는 Wordsworth의 作品世界를 이리하는 데 있어서 試金石(touchstone)이라 할 수 있는 "I wandered lonely..."를 分析하여 그의 詩에서 回想(recollection)이 지니고 있는 詩的 意義를 규명하고, 나아가서 回想을 통해 나타나는 自然과 人間의 關係에 대한 情緒反應을 素材로 다룬 "Tintern Abbey Lines", "Immortality Ode", "Elegiac Stanzas" 이상 세 편의 詩에서 Wordsworth의 自然과 人事에 관한 태도와 심경의 변화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1) Rene Wellek, *Concepts of Criticism*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63), p.161.

(2) *Ibid.*, p.183.

(3) Thomas Hutchinson and Ernest de Selincourt (eds.), *Wordsworth: Poetical Works* (London: Oxford Univ. Press, 1969), p.737.

I. 回想的 詩

William Wordsworth의 詩에서 主觀대상인 自然은 主觀的 情緒와 思想의 ‘客觀的 相關物’로서의 的의를 지니고 있다. Elizabeth Drew가 말했듯이 正서적 特질을 담고 있지 않는 단순한 自然모사는 無미건조할 것이다.⁽⁴⁾ 自然物은 回想을 통해 情緒와 結合하여 詩的 自然으로 나타난다. 1815년의 詩集 序文에서 그는 詩作에 必要한 ‘힘(powers)’을 Observation and Description, Sensibility, Reflection, Imagination and Fancy, Invention, 그리고 Judgment라 하고, 그 세번째인 回想(Reflection)에 關係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Reflection... makes the Poet acquainted with the value of actions, images, thoughts, and assists the sensibility in perceiving their connection with each other.⁽⁵⁾

즉 詩人은 詩的 經驗이 있는 다음 오랜 時間이 지난 뒤 回想을 통해 客觀的 行爲나 物像과 思想 또는 感情을 연결시켜 詩로 表現한다는 것이다. 실로 Wordsworth의 詩는 ‘回想的 詩’라 할만큼 그의 詩에서 回想은 특히 중요한 的미를 지닌다.

回想的 필수 要件은 靜寂이다. 즉 詩의 素材는 “靜寂속에서 回想된 情緒”인 것이다. 回想된 景서는 回想하는 동안 과거의 직접경험 당시의 情緒를 환기시키게 되고, 靜寂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⁶⁾ Wordsworth의 詩를 읽을 때, 우리는 도처에서 “solitary”, “tranquil”, “quiet”, “calm”, “peace”, 등의 단어들과 만나게 된다. “Solitude는 ‘외로움’의 의미보다는 ‘혼자 있음’의 의미가 강하다. 自然과의 만남이 오랜 時間이 지난 뒤 正칙속의 회상을 통해 마음의 눈에 비쳐오는 것이다. 즉 自然親和는 직접경험보다 經驗의 記憶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記憶을 유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自然의 物像들이다.

수선화를 素材로 쓴 詩 “I wandered lonely”는 靜寂과 回想的 意味가 가장 잘 표현된 作品이다.

詩人은 혼자 방황하다가 호수 가에 무리지어 핀 수선화가 더풍에 춤추고 있는 모양을 보고 자신도 함께 춤을 춘다.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은 詩人 자신도 한 떨기 꽃이 되는 自然親和를 의미한다. 이 經驗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詩로 昇華된다.

I wandered lonely as a cloud
That floats on high o'er vales and hills,
When all at once I saw a crowd,
A host, of golden daffodils;
Beside the lake, beneath the trees,
Fluttering and dancing in the breeze.

Continuous as the stars that shine
And twinkle on the milky way,
They stretched in never-ending line
Along the margin of a bay:
Ten thousand saw I at a glance,
Tossing their heads in sprightly dance.

The waves beside them danced; but they
Out-did the sparkling waves in glee:
A poet could not but be gay,
In such a jocund company:
I gazed—and gazed—but little thought
What wealth the show to me had brought:

For oft, when on my couch I lie
In vacant or in pensive mood,
They flash upon that inward eye
Which is the bliss of solitude;
And then my heart with pleasure fills,
And dances with the daffodils.

이 詩는 단순히 수선화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수선화, 호수, 나무, 바람, 인간 등으로 이루어진 自然의 秩序, 그리고 自然의 秩序를 포함하고 있는 宇宙의 秩序를 다룬 作品이다. Durrant는 形式主義 批評(formal criticism)의 觀點에서 이 詩를 10여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分析한 다음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The poem as a whole is not about daffodils, except the focal point of a much wider perception. It is about the complex life of nature, and man's sense of exile from that life. What Wordsworth invites us to remember with him, imprisoned in our solitudes, is the universal order of which we ourselves, the trees, the daffodils, and the stars, are all individual parts.⁽⁷⁾

(4) Elizabeth Drew, *Poetry: A Modern Guide to Its Understanding and Enjoyment* (New York: Dell Publishing Co., Inc., 1959), p.171.

(5) Hutchinson and Selincourt (eds.), p.752.

(6) *Ibid.*, p.740 Wordsworth said, “...poetry is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 it takes its origin from emotion recollected in tranquillity: the emotion is contemplated till, by a species of re-action, the tranquillity gradually disappears, and an emotion kindred to that which was before the subject of contemplation, is gradually produced, and does itself actually exist in the mind.”

(7) Geoffrey Durrant, *Wordsworth and the Great System: A Study of Wordsworth's Poetic Univer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133.

이 詩는 Lord's Prayer 만큼이나 널리 알려져 있어 어린이들까지도 즐겨 암송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깊이나 세부적인 의미에 대한 음미와 분석이 소홀히 되어 왔음이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作品속에 秩序世界觀 뿐만 아니라 詩作過程 즉 經驗의 詩的 變容 과정에 대한 설명이 도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Tintern Abbey", "Immortality Ode", "Elegiac Stanzas" 기린 自然이 주는 報償에 관한 冥想 또한 이 詩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즉 自然의 報償은 物값이 아니라 "금같은(golden)" 것이기에 "wealth"라는 어휘는 사용하였다.

이 詩의 제 1연에서 제 3연까지는 호수 가에 되어 있는 수선화를 볼 당시의 직접경험을 다루고 있고, 제 4연은 다저의 경칩에 대한 명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 1연에서 수선화, 나무, 호수 그리고 바람이 조화를 이루는 自然의 秩序와, 그 질서 속에 인유하지 못하고 떠도는 人間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自然은 기쁨이 넘치는 樂園이며, Northrop Frye의 말처럼, "自意識의 原罪"⁽⁸⁾로 인하여 人間은 自然의 秩序로부터 소외되어 특정한 場所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처없이 바람부는대로 浮遊하는 구름과 같다. 제 4행의 "golden"은 自意識에 의해 外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기 않는 수선화에 적합한 수식어이며, 타락이전의 人間이 살던 Eden이나 黃金時代(Golden Age)에 대한 연상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Fluttering"과 연결되어 노란 나비를 연상케 한다. 그리고 제 3연의 "wealth"와도 연결된다. "Fluttering"은 비중에 흔들거리는 개개의 수선화가 그 生動感을 자랑함은 뜻하는 동시에 儼然는 보다 큰 질서 즉 "dance"의 일부분임을 말해준다.

제 2연에서 수선화를 은하수에서 반짝이는 별들에 비유함으로써 自然의 秩序가 더 넓은 宇宙의 秩序의 일부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Tossing"과 "dance"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 부는바 전체의 조화를 대시하며, 詩의 image가 particular-general이 되어 한낱은 역설을 입증해주고 있다. 제 3연의 수선화와 춤과 물결의 춤의 비유는 바람에 대한 반응에서 물결의 운동보다 '웃의 춤'이 더 높은 질서임을 말해준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詩는 詩作過程

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제 1연에서 무질서한 우리들을 뜻하는 "crowd"로부터 "host"로, 그리고 전체의 "fluttering"으로 부터 "dancing"으로의 전환은 詩人の 想像力에 의한 질서의 인식과정은 의미한다. Durrant는 詩人の 想像力은, 두둑의 밋은 통과 시키면 찬란한 두둑기의 인공식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한다는 의미에 비유하였다.⁽⁹⁾ 自然의 모습에 기인한 단순한 인상이나 감각인상을 받아 들여 詩的 秩序를 창조하는 詩人の 想像力은 길프 prism에 견줄만 하다. 詩人이 Observation의 단계에서 sensation을 일차원이 아닌 인체의 分析의이고 論理的인 思考나 판단이 증기된 "wise passiveness"의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제 3연의 "I gazed—and gazed—but little thought"는 바로 이의 같은 상태를 설명한 말이다. 自然의 아름다운 광경("the show")이 주는 의미(즉 "wealth")는 時間이 흐른 뒤 靜寂상태("in vacant or in pensive mood")에서 回想할 때 孤獨의 淨福인 心眼(that inward eye/Which is the bliss of solitude)"에 vision이 감겨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詩人도 自然과 다른 질서속에서 속해 있다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自然의 일부가 되어 自然觀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 詩人은 구름처럼 부끄러운 그독한 기분(lonely mood)에 사로잡혀 있다가 수선화를 보는 순간 상상력의 自覺에 의해 기쁨(joy)을 얻고, 이 感情은 時間이 지난 뒤 靜寂속의 回想을 통해 가연감정적으로 넘쳐 흘러 詩로 表現되는 것이다. 心眼("inward eye")은 단순한 記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想像力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loneliness와 solitude 또한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다.

Wordsworth의 詩에서 수선화와 같은 구체적 對像은 그것을 통해서 自然의 秩序를 깨달을 때 느끼는 主觀的 情緒를 담은 詩的 이미지(poetic image)인 것이다. 그런데 Wordsworth의 이미지는 外形의 변화없이 주관적, 감각적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수선화는 수선화이던지 은하수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우주의 질서를 표현하는 objective correlative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客觀的 對像과 主觀的 情緒의 結合은 冥想을 통해 일어 난다. 따라서 Wordsworth의 冥想된 過去는 Rousseau의 그것처럼 양면성을 지니게 된

(8) Northrop Frye, *A Study of English Romanticism* (New York: Random House, 1963), p. 18.

(9) Durrant, *op. cit.*, p. 127.

다. Poulet 는 Rousseau 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The past in Rousseau) has two faces. One is the object, the image, the simple 'sensation' which having been once experienced has not ceased to be capable of producing a new emotion. The other is feeling, always ready to revive at the slightest summons of the image, or to unite with it at the last moment by a swift leap that cancels distances, that abolishes time. Through that act, as in the 'moment eternal,' we discover once more the union of the two primitive elements: inward feeling and pure sensation.⁽¹⁰⁾

위의 설명은 Wordsworth 의 경우에도 별 수정 없이 적용될 수 있다. 지각 경험 당시의 感覺과 보다 内面化된 感情은 時空을 초월하여 感覺對象과 結合하여 poetic image 를 형성한다. 그리고 回想은 時間性 회복의 의미를 갖는다.

回想은 서로 다른 두 時間사이에 일어난 自我의 變貌를 일깨워 준다. 時間의 江을 타고 흐르는 過去の 意識을 건너 내어 現在와 過去를 同化시킴으로써 人間은 時間에서 해방되어 永遠의 世界를 볼 수 있는 vision 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이다. Durrant 는 “聯想法則에 따라 마음의 열쇠로 記憶의 문을 열면 過去가 솟구치며 밀려와 記憶은 時間으로부터 해방된다”고 말했다.⁽¹¹⁾ 우리는 Wordsworth 의 詩에서 回想된 情緒에 대한 명상을 통해 그의 自然과 人間의 관계에 관한 태도를 알아 볼 수 있다.

II. 時間의 江

“Tintern Abbey Lines”⁽¹²⁾는 時間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人間意識의 變化 또는 人間精神의 成長을 다룬 詩이다. 人間意識의 變化는 서로 다른 두 時空에기 본 同一한 自然의 모습에 대한 情緒의 反應의 차이를 意識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詩에서 詩人은 5년이라는 客觀的 時間(Objective time)의 경과에 따라 잃은 것이 있으나, 自然이 눈길길 靑草은 미더의 삶을 위한 양식이 되리라 確信한다. 自然과 人間의 관계는 異時間의 戀情, 肉親의 사랑 또는 宗教的 崇拜로 表現되어 있다.

Five years have past; five summers, with the length
Of five long winters! and again I hear

These waters, rolling from their mountain-springs
With a soft inland murmur. —Once again
Do I behold these steep and lofty cliffs,
That on a wild secluded scene impress
Thoughts of more deep seclusion; and connect
The landscape with the quiet of the sky.
The day is come when I again repose
Here, under this dark sycamore, and view
These plots of cottage-ground, these orchard-tufts,
Which at this season, with their unripe fruits,
Are clad in one green hue, and lose themselves
'Mid groves and copses. Once again I see
These hedge-rows, hardly hedge-rows, little lines
Of sportive wood run wild: these pastoral farms,
Green to the very doot; and wreaths of smoke
Sent up, in silence, from among the trees!
With some uncertain notice, as might seem
Of vagrant dwellers in the houseless woods,
Or of some Hermit's cave, where by his fire
The Hermit sits alone. 11, 1—22

제 1 연에서 초록 언덕의 Wye 江의 風景은 自然의 調和를 의미하여, 대지와 하늘을 잇는 絶壁은 이 詩 전체에 암시되어 있는 自然과 人間 그리고 神의 世界의 unity 를 象徵한다. 또한 이 絶壁을 통해 하늘로 이어진 風景은 自然과 人間의 關係에 대한 詩人의 理想이 感覺의 次元에서 心理的·倫理的 次元을 거쳐 神秘의 世界로 上昇함을 뜻하는 ‘客觀的 相關物’인 것이다. 이와 같은 Wye 강변의 풍경은 5년전의 자신의 모습은 回想케하여 당시에 느꼈던 感覺經驗(sensation)과 內的 感情(inward feeling)을 喚起시켜 주는 image 이다. 여기서 詩人은 “five”를 세번 되풀이 함으로써 時間의 要素를 강조하였고, 다시 만난 感慨를 표현하기 위해 “Once again”을 되풀이 하였다.

回想은 時間의 江을 거슬러 올라가 現在속에 살아 있는 過去の 意味를 명상하는 mental process 이다. 山의 原流로부터 内地의 속삭임을 듣고, Wye 江은 ‘永遠의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 永의 흐름은 時間을 象徵한다. 이 흐름 속에는 自然에서 일어난 感覺과 情緒가 合流하고 있다. 詩人은 이 江을 보면서 意識의 斷絶을 깨닫는다. 즉 5년전과 지금의 자신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That time is past
And all its aching joys are now no more,
And all its dizzy raptures. Not for this
Faint I, nor moan nor murmur; other gifts

(10) Georges Poulet, *Studies in Human Time*, tr. Elliott Colema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6), p.184.

(11) Durrant, *op.cit.*, p.78.

(12) 김 세우는 “Lines Composed a Few Miles Above Tintern Abbey, on Revisiting the Banks of the Wye During a Tour, July 13, 1793”이지만 편의상 “Tintern Abbey Lines”라 부르기로 한다.

Have followed; for such a loss, I would believe,
Abundant recompense. 11. 83-88

이 詩句는 自我意識의 斷絶을 表現한 것이며, “두 지개”에 관한 詩에서 그의 나날이 “自然에 대한 敬虔한 마음(natural piety)”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듯 自然을 볼 때 느끼는 感情이 Wye처럼 연속적인 흐름이기를 渴望하고 있다. 과거를 回想해 볼 때, 잃은 것은 5년전에 느낄 수 있었던 “짜릿한 快感”과 “아찔한 恍惚”이다. 그 당시는 自然으로부터 疎外感을 느끼지 않고 한 떨기 “수선화”가 되어 自然과 調和로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喪失을 슬퍼하지 않고, 自然의 報償을 믿으며, 과거에 있었던 自然과의 unity를 회복하려 한다. 여기서 喪失은 엄연한 現實이지만 報償은 믿음에의 所望(즉 “I would believe”)이다.

다음에 인용한 詩句에서 詩人は 自然愛에서 오는 報償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感覺的, 倫理的, 神秘的, 次元의 보상이 그것이다.

I have owed to them
In hours of weariness, sensations sweet,
Felt in the blood, and felt along the heart;
And passing even into my purer mind,
With tranquil restoration:—feelings too
Of unremembered pleasure: such, perhaps,
As have no slight or trivial influence
On that best portion of a good man's life,
His little, nameless, unremembered, acts
Of kindness and of love. Nor less, I trust,
To them I may have owed another gift,
Of aspect more sublime; that blessed mood,
In which the burthen of the mystery,
In which the heavy and the weary weight
Of all this unintelligible world,
Is lightened;—that serene and blessed mood,
In which the affections gently lead us on,—
Until, the breath of this corporeal frame
And even the motion of our human blood
Almost suspended, we are laid asleep
In body, and become a living soul:
While with an eye made quiet by the power
Of harmony, and the deep power of joy,
We see into the life of things. 11. 27-49

월관을 타고 심장을 따라 흘러 “純粹한 精神”으로 스며드는 內面的 江에는 “sensations”가 용해되어 흐르고 있고, 또한 記憶할 수 없는 知覺對象에 관한 “feelings”가 있어 人間의 德性을 인도한다.

(13) Walter Jackson Bate *From Classic to Romantic: Premises of Taste in Eighteenth Century England* (New York: Harper & Row, 1946) p. 50.

(14) William Empson, *Seven Types of Ambiguity* (Penguin Books, 1930), pp. 180-183.

“平靜하고 幸福한 氣分”(blessed mood)은 가장 崇高한 自然의 선물로서 詩人으로 하여금 自然에 內在하는 神性을 볼 수 있게 해주는 神秘的 vision을 말한다. Rousseau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ensations”는 지각 대상과 밀착된 感覺經驗을 말하며 “feelings”는 지각대상으로부터 분리된 情緒反應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는 Wordsworth가 Hartley나 Hume의 聯想理論(associationism)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연상이론에 의하면 인간정신은 다만 外部로부터 인상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기능에 불과하다. 또한 人間을 善行으로 인도하는 “feelings”의 설명은 18C Earl of Shaftesbury나 Richard Cumberland의 德性理論과 일치한다. 이들은 人間에게는 저절로 선으로 향하게 하는 타고난 “feeling”이나 “sense”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¹³⁾ Wordsworth는 이들의 經驗論的 思考에 머물지 않고, 보이는 世界의 이면에 존재하는 宇宙의 秩序를 포인함에 있어 理想主義의 경향까지 보여 주고 있다. 이 세 가지 自然의 선물은 Wye 풍경처럼 연속적이며, 심지어 “事物의 生命을 透視하는” 신비적 vision조차도 눈에 보이는 自然의 調和와 上위의 象徴을 통해 얻어진다는 점에서 현상계를 경시하는 Platonism과는 다르다.

제 4 연에서 Wordsworth는 위의 神秘的 經驗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敷衍하였다.

I have learned
To look on nature, not as in the hour
Of thoughtless youth; but hearing oftentimes
The still, sad music of humanity,
Nor harsh nor grating, though of ample power
To chasten and subdue. And I have felt
A presence that disturbs me with the joy
Of elevated thoughts; a sense sublime
Of something far more deeply interused,
Whose dwelling is the light of setting suns,
And round ocean and the living air,
And the blue sky, and in the mind of man;
A motion and a spirit, that impels
All thinking things, all objects of all thought,
And rolls through all things. 11. 88-102

Empson은 이 句節을 “哲學的 模糊性”의 보기로 들어, 그 文法的 해석 방법에 따라 汎神論的 自然觀, 基督敎的 神秘主義 등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¹⁴⁾ 文法的 측면에서 볼 때 첫째,

무엇이 무엇보다 더 깊이 침투되어 있는지가 모호하고, 둘째, “人間性的 音樂”이 “presence”와 同格 인지가 불확실하며, 셋째, 전치사 “in”이 自然物과 人間精神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만약 “something”과 “presence”가 동격이라면, 그리고 이 둘이 “music of humanity”보다 더 깊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라면, 自然, 人間 그리고 神의 관계에 대한 Wordsworth의 내도는 汎神論의이라 할 수 있다. 즉 그의 정신에 혼란을 초래한 “存在”는 바로 그것이 창조한 世界속에 內在(immanent)하는 神이며, “人間性的의 슬픈 音樂”보다 한 겹 더 깊은 곳에 존재한다. 만약 “something”이 “presence”보다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神은 특히 mystic에게만 啓示하기 때문에 基督敎의 神秘主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치사 “in”에 관한 Empson의 해석은 다소 수궁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Whether man or some form of God is subject here, he distinguishes between *things* which are objects of *thought*, these he *impels*; and *things* which are neither objects of *thought*, through these he merely *rolls*. (I am not sure what is the logical status of the *things* not the objects of *thought* about which Wordsworth is *thinking* here; after all, he is not thinking very hard, so it may be all right.)⁽¹⁵⁾

思考의 主體와 對象이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something”은 自然物 속에, 그리고 “A motion and a spirit”는 인간정신 속에 있는 것이라는 해석은 論理的으로나 文法的으로나 설득력이 없다. 또한 “all things”를 思考의 主體도 對象도 아닌 事物로 보는 견해는 더욱 不合理하다. 여기서 “motion”은 햇빛, 태양, 공기 등 物質世界속을 구르는, Newton의 만유인력과도 같은 運動이고, “spirit”는 精神世界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이 둘이 단수 동사 “impels”로 연결된 것을 보면 “all things”가 思考의 主體와 對象을 모두 포함하는 “萬物”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ordsworth는 二元論的 思考를 지양하여, “something”으로써 物質과 精神의 unity를 강조하는 一元論的 自然觀을 주장하고 있

는 것이다.

Durrant는 思考하는 人間과 思考의 對象의 대조가 이 詩 전체에 의미 있는 構造를 형성하고 있으며, 存在의 궁극적 바탕은 바로 이들의 調和를 가능케 하는 “something”이라 했다.⁽¹⁶⁾ Durrant는 특히 Wordsworth의 詩에서 傳統의 要素를 강조하고, 이 詩에 표현된 신비적 경험은 18C까지의 Newton으로 대표되는 科學精神과 Berkeley의 理想主義 哲學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의 결실이라 하였다.⁽¹⁷⁾ 또한 그의 詩에 우주의 질서를 찬양한 Pope, Thomson, 등의 詩 傳統과도 그 맥락이 양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 Wordsworth는 전통적인 基督敎의 超越主義나, 우주를 生命이 없는 事物의 集合體로 보는 기계주의적 우주관을 부정하고, 보이는 自然의 이면에 生命力 또는 宇宙精神이 살아 있어 自然의 物像을 통해 이 精神이 나타난다는 나름대로의 自然觀을 表現하려 했다.

이 詩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Gerard가 지적한 바와 같이, 自然의 報償(주 自然이 人間精神의 成長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確信의 밑바닥에는 疑惑의 분위기가 깔려 있다는 점이다.⁽¹⁸⁾ 感覺經驗에서 神秘的 經驗으로 上昇적구름의 축이 커지고 있음은, 제 2절에서 “I have owed”, “unremembered”, “I may have owed”의 변위, 제 3절에서 “If this/Be but a vain belief”, 그리고 제 4절의 “I would believe”등의 表現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詩人의 mystic vision이 elusive하며, 宗教的 혹은 哲學的 信念이기보다는 믿음에의 소망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vision은, Wordsworth 자신이 말했듯이, 평범한 事物에 “想像의 빛날”을 더하는 詩의 表現樣式이기도 하다.

이 詩의 핵심은 잃어버린 時間을 回想하여 自我意識의 동일성을 회복함으로써 다시 自然觀和를 경험하는 데 있다. 過去의 情緒를 관기시킴에 있어 Wye 풍경뿐 아니라 누이 Dorothy 또한 그 客觀的 相關物의 역할을 한다. Benzig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두번째 Wye 방문 시 그의 누이는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의 나이에 해당한다.⁽¹⁹⁾ 즉 그는 누이

(15) *Ibid.*, p. 182.

(16) Durrant, *op. cit.*, p. 95.

(17) *Ibid.*, pp. 96—103.

(18) Albert S. Gerard, “Exploring *Tintern Abbey*”, in *Critics on Wordsworth*, ed. Raymond Cowell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3) p. 61.

(19) James Benziger, “‘Tintern Abbey’ Revisited”, in *Wordsworth: Lyrical Ballads*, eds. Alun R. Jones and William Tydeman (London and Basingstoke: The MacMillan Press, Ltd., 1972), p. 241.

를 통해 5년전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일개의 그녀로 하여금 전에 자신이 그러했듯이 自然이 주는 “wild ecstasies”를 경험케 하여, 그녀의 精神이 “온갖 아름다운 형상들의 거택”이 되고 그녀의 記憶이 “모든 아름다운 소리와 조화의 거처”가 될 때, 후일 그녀 역시 지금의 것처럼 “sober pleasure”를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의 Dorothy는 5년전의 그 자신이 되고 그녀를 통해 自然과의 unity를 다시 느끼게 되며, 現在와 過去는 하나의 흐름이 되어 未來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Wye 강경은 그 자체로서도 소중하지만 Dorothy가 있기때 더욱 소중한 것이다. 이 詩에서 Wordsworth가 강조하는 것은 自然에 대한 宗教的 感情보다 오히려 人間的 愛情이다.

Wordsworth는 자신의 잃어버린 過去를 回想함으로써 時間的 存在로서의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과거의 喪失은 現在의 喪失을 암시해 주며, 자신이 누이의 유령이 들리지 않는 극즉 “eternal silence”의 世界에 가 있을 때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죽은은 누이와의 이별이며, 自然과의 이별이기도 하다. 여기서 Wordsworth는 現世에서의 “소란한 인질”을 斷絶된 時間이 아니라 Wye 강처럼 永遠한 흐름으로 의식하기 되고 前生神話 같은 精神의 眞요성을 느낀 것이다.

Wordsworth는 결코 이 詩에서 어느 종파의 宗教敎團나 어느 학파의 哲學思想을 표현하려 하진 않았다. Wye 강변의 詩化적 風景描寫와, 自然과 人間의 關係에 대한 心理的 宗教的 哲學的 理想, 喪失과 報償에 대한 疑問과 회의, 詩人의 누이와 自然의 關係에 대한 생각— 이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 詩 전체에 統一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自然과 人間에 대한 顯念의 sensationalism, associationism, Shaftesbury의 “moral sense”理論, idealism, mysticism, 등의 다양한 哲學的, 宗教的, 경험은 보이고 있음은 Empson이 말한 바와 같이 詩의 意味를 含糊하게 하기 위한 philosophical ambiguity의 효과를 위한 것이며, 疑問의 根은 다름 흐름은 人間의 條件에 대한 疑問과 傳統的 自然觀 및 宇宙觀을 걸잡 시켜 그 종파 간의를 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 이 詩의 1차 제목은 “Intimations of Immortality from Recollections of Early Childhood”이다.

(21) Sir Maurice Bowra, *The Romantic Imagination* (London: Oxford Univ. Press, 1961), p.76.

Ⅲ. 永遠의 바다

“Tintern Abbey Lines”에서 回想된 時間은 自然의 아름다운 형상들에 대한 熱情的 사랑이 지배했던 youth에서 끝났으나, “Immortality Ode”⁽²⁰⁾에서는 vision을 상실한 man에서 youth와 childhood를 거쳐 神話的 時間인 前生(pre-existence)에까지 이른다. 前生은 永遠한 靜寂의 世界이며, “永遠의 바다”에 비유되어 있다.

이 詩는 精神的 危機(제 1연—제 4연), 前生神話와 回想理論에 의한 위기의 說明(제 5연—제 8연), 그리고 自然과 人生의 意味를 명상하여 얻은 慰安(제 9연—제 11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²¹⁾ Wordsworth는 이 詩에서 빛의 이미지를 1관성 있게 사용하고 있다. 한 때 自然이 웃임고 있던 “天國의 빛”은 人間의 本郷인 God에게서 나오는 빛이며, 어린이가 단상한 지 “빛의 구름”을 이끌고 와서 成長 과정에서 이 빛이 “日常의 빛”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喪失한 빛은 또한 어린이가 자라 어른이 된 人間의 內面에 餘燼(embers)으로 살아 있다.

Wordsworth의 精神的 危機는 어린 때 自然에서 볼 수 있었던 vision의 喪失에 기인하며, 이 빛은 또한 詩的 靈感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vision은 보이는 自然을 통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世界를 보는 것을 뜻한다. “Tintern Abbey Lines”에서 “事物의 生命은 透視”하는 “blessed mood”와도 상통한다. 그리고 vision의 순간에 肉身은 잠들고 긴 영혼이 됨으로써 또 다른 世界 즉 永遠의 世界로 들어 가게 된다. 이와 같은 빛의 喪失은 시각 영감의 고간을 의미하기에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유발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自然과의 別離인 동시에 永遠한 世界로부터의 解放을 의미한다.

Wordsworth는 第二回에서 前生神話로써 喪失한 “빛”의 本質을 說明하고 있다.

Our birth is but a sleep and a forgetting;
The Soul that rises with us, our life's Star,
Hath had elsewhere its setting,
And cometh from afar:
Not in entire forgetfulness,
And not in utter nakedness,
But trailing clouds of glory do we come
From God, who is our home:

Heaven lies about us in our infancy!
 Shades of the prison-house begin to close
 Upon the growing Boy,
 But He
 Beholds the light, and whence it flows,
 He sees it in his joy;
 The Youth, who daily farther from the east
 Must travel, still is Nature's Priest,
 And by the vision splendid
 Is on his way attended;
 At length the Man perceives it die away,
 And fade into the light of common day.
 'Immortality Ode', 59—77

前生神話로써 그는 永遠에 비해 刹那에 지나지 않는 人生的 斷絶된 時間에 연속성을 부여한다. 自然이 입고 있었던 빛의 의상은 이 地上의 것이 아니라 天國에서 어린이가 입고 온 것이며, 現世는 인간 영혼의 本郷이 아니라 “prisonhouse”이다. 빛의 세계에서 현세로 떠나 올 때 어린이는 “빛의 구름”을 타고 와서 成長과 더불어 점차 잃게 되며, 成人이 되면 마침내 이 빛은 “日常의 빛”속으로 사라지게 된다.⁽²²⁾

이 詩에서 Wordsworth가 前生神話を 도입한 것은 “Tintern Abbey Lines”에서 聯想理論을 이용하여 感覺經驗을 통한 神秘的 vision을 표현한 것처럼, 그의 哲學的 思想이나 宗教的 信念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詩의 表現樣式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Wordsworth 자신도 詩의 目的을 위해 前生의 概念을 사용했음을 분명히 했다.⁽²³⁾ Alec King은 “Two Childhoods in the *Immortality Ode*”라는 論文에서, 이 詩의 제 5절은 前生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神話を 빌어 보편적 人生經驗을 설명한 것이라 하였다.⁽²⁴⁾ 그 보편적 人生經驗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엇”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며, 어린 식의 幸福은 그 당시에는 그 가치를 모르며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위 詩句에는 回想理論이 포함되어 있어 제 9절의 餘燼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出生은 志却”이란 말은 잊혀진 빛을 다시 記憶에 의해 回想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前生神話는 “回想的 神話”(Myth of memory)라 한직 하다.⁽²⁵⁾ Bowra는 Wordsworth가 그의 回想理論을 Plato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아들 Hartley의 단정 소식을 듣고 쓴 Coleridge의 sonnet에서 前生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어린적 純粹性(childhood innocence)의 喪失을 읊은 Henry Vaughan의 “The Retreat”에서 ‘감각적인 喪失’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어, 이들을 결합하여 그 자신의 回想理論으로 발전시킨 것이라 하였다.⁽²⁶⁾ 喪失한 前生의 빛은 言語로는 간단히 表現될 수 없기 때문에 逆說의이고 模糊한 이미지나 象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것이다.

Wordsworth의 回想理論에서 喪失한 빛의 回想은 知覺對像인 自然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구체적 自然의 物像들은 이 “빛” 즉 또 다른 世界에 대한 象徴으로서의 意味를 지닌다. 따라서 自然은 “感覺的 言語(the language of the sense)”인 것이다.⁽²⁷⁾

O joy! that in our embers
 Is something that doth live,
 That nature yet remembers
 What was so fugitive!

11. 133—136

이 句節은 그의 回想理論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日常의 빛” 속에 흡수되어버린 “天國의 빛”은 人間의 內面 어린이에 살아 “embers”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Wordsworth는 餘燼의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지 그의 自然과 人間의 關係에 대한 태도를 表明하고 있다. 이 절에 대해 Alec King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였다.⁽²⁸⁾ 즉 “등불”은 외부의 임금이 없으면 꺼져 버릴 수 없으며, 이 임금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omely Nurse”인 自然이라는 것이다. 自然은 그렇게 사라지기 쉬운 “빛”을 記憶하고 있으며, 自然物의 象徴으로서, 人間에게 그 “빛”은 回想시켜 준다.

自然은 그 구체적 形像들을 통해 그렇게도 “fugitive”한 빛의 世界를 암시한다. 제 2절에 묘사된 “Rainbow”, “Rose”, “moon”, 그리고 물결 비친

(22) 빛의 역설에 관해서는 Cleanth Brooks가 formal criticism의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The Well Wrought Urn: Studies in the Structure of Poetr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47), pp.127—130참조.

(23) Cowell(ed.), *op. cit.*, p. 93.

(24) *Ibid.*, p. 94.

(25) Harold Bloom, *The Visionary Company: A Reading of English Romantic Poetry* (London: Faber and Faber, 1961), p. 127.

(26) Bowra, *op. cit.*, p. 97.

(27) “Tintern Abbey Lines” 제108행 참조.

(28) Cowell(ed.), *op. cit.*, p. 96.

별 등은 自然美의 표상들인 동시에, 現世에서 볼 수 있는 “visionary gleam”을 보여 줌으로써 그 빛의 근원이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永遠의 世界를 암시하는 象徴들이다. 무지개는 “日常의 빛”의 변형이며 아무리 짙어 해도 잡히지 않고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따라서 “Rainbow”는 대표적인 vision의 이미지이다. 강미의 아름다움은 한 킬 뿐이다.⁽²⁹⁾ 날의 간헐은 하루 뿐이다. 물에 비친 별은 물결이 일면 가워져 버린다. 이러한 自然의 現象들은 환란한 빛의 세계를 암시하며, 또한 自然의 偶變은 어느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 自然의 象徴을 통한 世界의 인식은 自我의 認識과 직결된다. 인간은 天의 상경을 보고 人生의 無常을 생각하게 되고, “빛”의 상경을 통해 영혼의 불멸을 암시 받는다.

태양과 별은 “生命의 별” 즉 영혼을 상징하며, Child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태양은 ‘하늘의 눈’이라 할 수 있고, 어린이는 “Eye among the blind”라 했다. 인간의 영혼을 등에서 퍼져 서서 지는 태양 또는 달에 비유하였다. 태양과 달은 영원한 自然의 循環을 보여 줌으로써 영혼의 불멸을 암시한다.

餘燼은 빛뿐만 아니라 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없던 깊은 날”의 自然에 대한 熱情을 聯想시킨다. 이 타다 남은 재 속에 自然이 일기를 끌어 넣어 갖춰 낸 것은 “最初의 愛情”에 대한 “어려운 환상”이다.

But for those first affections,
Those shadowy recollections,
Which, be they what they may,
Are yet the fountain light of all our day,
Are yet a master light of all our seeing;
Uphold us, cherish, and have power to make
Our noisy years seem moments in the being
Of the eternal Silence: truths that wake,
To perish never;
Which neither listlessness, nor mad endeavour,
Nor Man nor Boy,
Nor all that is at enmity with joy,
Can utterly abolish or destroy!
Hence in a season of calm weather
Though inland far we be,
Our Souls have sight of that immortal sea
Which brought us hither,
Can in a moment travel thither.

And see the Children sport upon the shore,
And hear the mighty waters rolling evermore.

11. 152-171

일단 “最初의 愛情”을 회상해 보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眞理가 되고, “全生靈의 빛의 源泉”이며, “모든 視覺의 주되는 빛”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回轉함으로써 人間은 時間으로부터 해방되어 “永遠의 바다”를 볼 수 있고, 現世의 “소란한 年月”은 “永遠한 靜寂”에 비하면 刹那에 불과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永遠의 바다” 즉 前生의 回轉은 現世의 삶을 부정하고 永遠의 世界에 安住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의 불멸에 대한 信念을 얻음으로써 時間的 存在로서의 人間の 條件을 理解하고 주어진 現實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이 詩의 중심은 喪失에의 悲嘆이 아니라 회상에 의한 “first affections”의 회복에의 信念과 그로 인한 慰安에 있다. 회상은 前生으로 돌아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現世의 人生에 意味를 부여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過去의 時間을 회복하여 그 現在性을 願想하고 다시 自然親和를 경험하려는 것이다. “草原의 빛”이나 “꽃의 榮光”의 時節을 되찾을 수 없어도, 과거에 있었기에 永遠히 있을 “原初의 共感(primal sympathy)”과 “죽음을 透視하는 信仰” 즉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으로 慰安을 받아 다시 自然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

And O, ye Fountains, Meadows, Hills and Groves,
Forbode not any severing of our loves!
Yet in my heart of hearts I feel your might;
I only have relinquished one delight
To live beneath your more habitual sway.
I love the Brooks which down their channels fret,
Even more than I tripped lightly as they;
The innocent brightness of a newborn Day
Is lovely yet;
The clouds that gather round the setting sun
Do take a sober coloring from an eye
That hath kept watch o'er man's mortality;
Another race hath been, and other palms are won.
Thanks to the human heart by which we live,
Thanks to its tenderness, its joys, and fears,
To me the meanest flower that blows can give
Thoughts that do often lie too deep for tears.

11. 191-207

(29) Lucy poems중에서 “Strange fits of passion...”에는 Lucy를 유월의 장미(a rose in June)에 비유하였으며, 이 詩의 話者는 그 장미가 시든 줄은 모르고 있다. 그리고 “A slumber did my spirit seal”에는 다음의 句절이 나온다.
She seemed a thing that could not feel
The touch of earthly years.

自然을 볼 때 잃은 것은 “visionary gleam”이며 얻은 것은 自然의 “습관적 영향”임을 깨닫는다. “습관적 영향”이란 이른바 “lethargy of custom”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는 “embers”로부터 “原初的 其感”을 회상함으로써 항상 무지개를 볼 때 가슴이 비듯 自然의 形像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自然에 대한 敬虔感을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가슴 속에 살아 있는 人情이다. “지는 허”는 “人生의 별”이 서쪽으로 지는 것 즉 죽음을 암시한다. 그 주위에 모여드는 구름은 出生時 어린이가 깔고 있는 “빛의 구름”이며, 지금은 그 빛이 찬란한 빛이 더디의 “카분한 色彩”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태양은 “人生의 별” 즉 불멸의 영혼의 이미지도이다. “차분한 색채”는 바로 태양 또는 불멸의 영혼에서 나오는 빛이요, “永遠의 바다”에서 비치는 빛이다. 人生은 아침에 태양이 東에서 떠서 西로 지는 것에 비유되어 있다. Wordsworth는 自然의 形像들을 歪曲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詩의 이미지로 사용하였다. 태양이 뜨고 짐은 영원하며, 일출과 일몰은 바다에서 이루어 진다. 태양은 불멸의 영혼을 象徵하며, 바다는 “永遠의 바다” 즉 영혼의 本郷인 前生の 世界에 비유되어 있다.

“Tintern Abbey Lines”에서는 自然愛에 대한 報償에의 信念이 강했으나, 항상 그 이면에는 人間의 條件에 대한 疑惑이 저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Immortality Ode”에서는 人間의 宿命意識이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숙명의식을 극복하고 위안을 얻기 위해 前生神話와 回想理論을 도입하였다. 이 두 作品에 나타난 신비적 vision이나 영혼불멸의 암시는 모두 궁극적으로 自然親和로 귀결된다. 이 두 편의 詩는 모두 Blake의 “Song of Innocence”처럼 人生과 世界의 한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즉 靜寂의 바다는 보았으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분노의 바다는 보지 못했다. “Elegiac Stanzas”에서 비로소 정적의 바다는 다만 理想의 世界요, 暴風怒濤의 바다가 人生의 現實에 보다 가깝다는 眞實을 깨닫게 된다.

Ⅳ. 憤怒의 바다

“Elegiac Stanzas”도 “Tintern Abbey Lines”처럼 동일한 場所를 11년이 지난 뒤 재차 보았을 때 느끼는 相異한 情緒反應을 다룬 作品이다. 回想하는

(30) Bloom, *op. cit.*, p. 179.

現在와 回想된 過去 두 時間이 있으나, 이들은 연속적 時間이 아니라 斷絶된 時間으로 나타나 있다. 이 詩에는 “Tintern Abbey Lines”같은 自然의 報償에 대한 信念도 없고, “Immortality Ode”같은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도 없다.

이 詩는 商船의 船長이었던 아우 John Wordsworth의 죽음을 애도하여 쓴 作品이다. Harold Bloom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우의 죽음은 그의 人生에 있어서나 詩에 있어서 하나의 중대한 事件이었다.⁽³⁰⁾ 그는 暴風이 휘몰아 치는 憤怒의 바다와 絶壁위에 서 있는 古城 Peele Castle을 素材로 그린 Sir George Beaumont의 그림을 보고, 그로부터 11년 전에 보았던 동일한 바다, 絶壁, 古城을 회상한다. 그 때 만약 자신이 화가였더라면 그가 本風景에 “땅위에도 바다에도 없었던 빛”은 더했으리라 생각한다.

How perfect was the calm! it seemed no seep;
No mood, which season takes away, or brings:
I could have fancied that the mighty Deep
was even the gentlest of all gentle Things.

Ah! then, if mine had been the Painter's hand,
To express what then I saw; and add the gleam,
The light that never was, on sea or land,
The consecration, and the Poet's dream;

11. 9—16

그가 본 自然은 정적의 세계요, 거대한 힘을 지닌 바다조차도 고요의 바다였었다. “땅위에도 바다에도 없는 빛”은 Ode에서 말한 “天國의 빛”이며, 自然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詩人の 꿈”이 만들어진 虛構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回想된 古城의 風景에는 “영원히 미소짓는 바다”와 “조용한 육지” 그리고 “축복의 하늘”이 마치 “Tintern Abbey Lines”에 묘사된 Wye 강변의 등경처럼 調和를 이루어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I would have painted thee, thou hoary Pile
Amid a world how different from this!
Beside a sea that could not cease to smile;
On tranquil land, beneath a sky of bliss.

11. 17—20

그러나 Beaumont의 그림에는 “憤怒의 바다”가 그려져 있다.

This work of thine I blame not, but commend;

This sea in anger, and that dismal shore.

11. 43-44

위의 두 詩句에는 回想된 自然의 世界와 藝術의 世界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回想된 調和의 世界가 오히려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반면, 藝術의 世界에 나타난 操心노도 속의 古城의 모습이 보다 진실한 人生의 再現인 것같은 irony를 보여 준다.

“Tintern Abbey Lines”와 “Immortality Ode” 처린 이 詩에서도 喪失과 報償을 이야기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Such, in the fond illusion of my heart,
Such Picture would I at that time have made:
And seen the soul of truth in every part,
A steadfast peace that might not be betrayed.

So once it would have been, 'tis so no more;
I have submitted to a new control:
A power is gone, which nothing can restore;
A deep distress hath humanised my Soul.

11. 29-36

여기서는 自然의 모습을 回想하여 過去와 現在의 時間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에는 상실한 vision은 단지 “fond illusion”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부정함으로써 時間의 斷絶을 말해준다. 自然을 통해 永遠의 世界를 보는 vision은 喪失하였으나, 사랑하는 아우의 죽음을 통해 人間의 宿命이 느낌이나 생각에 그치지 않는 바로 그 자신의 現實임을 자각하여 보다 큰 넓은 人生觀을 갖게 된다. 과거에는 現實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죽음을 초월한 理想에의 信念 그 밑바닥을 흐르던 疑惑의 저류가 이제는 엄연한 現實問題로 識醒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얻은 “새로운 힘의 지비”는 “죽음의 바다”를 데려나가아가 하는 용기와 의지의 힘이다.

Farewell, farewell the heart that lives alone,
Housed in a dream, at distance from the Kind!
Such happiness, wherever it be known,
Is to be pitted; for 'tis surely blind.

But welcome fortitude, and patient cheer,
And frequent sights of what is to be borne!
Such sights, or worse, as are before me here.—
Not without hope we suffer and we mourn.

11. 53-60

과거의 靜寂은 “다른 人間들(the Kind)”로부터 떨어져 꿈꾸며 살 때 느낀 환상에 불과하며, 인간의 고통과 고치는 엄연한 현실이다.

“Tintern Abbey Lines”에서는 고통과 공포와 고통과 슬픔이 뒤섞인 人間世上을 피해 自然에 묻혀 隱者처럼 살았기에 그 때의 “人間性的 슬픈 音樂”은 멀리서 들려오는 “조용한(still)” 음악이었다. 그때는 自然을 때로는 애인처럼 熱情的으로 사랑하고 때로는 스승처럼 존경하고 교훈은 얻고 또 때로는 神같이 崇拜하는 태도가 지배적이었으나, 自然의 報償에 대한 信念의 이면에는 의욕이 도사리고 있었다. “Ode”에서도 自然의 象徵에서 永遠한 世界에 대한 암시를 얻어 다시 自然親和를 경험하였다. 그때는 죽음의식(death consciousness)이 있었으나 그 실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고 영혼분열에의 가능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Elegiac Stanzas”에서는 自然의 vision을 부정하고 人間世界로 돌아가 現實은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 들이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人間社會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던 과거의 “blessed mood”가 헛된 행복이었음을 깨닫고, 고통과 슬픔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가 나타나 있어 人生의 어두운 면까지도 포용하는 폭 넓은 人間愛에 도달해 있다. 아우 John의 죽음으로 인하여 宿命意識이 막힌 느낌이나 자신의 現實問題로 부각되어 있다. 人生은 참고 살아 가야 할 일이 많기에 堅忍不拔의 勇氣가 귀요함을 알고, 삶이 괴롭고 슬프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 적극적인 生의 태도가 表現되어 있다.

Ⅵ. 結 論

Wordsworth 批評에 있어서 評者들이 대개는 傳記의 事實을 作品世界와 연결시키는 역사적·전기적 비평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평의 경향은 浪漫主義 詩論 즉 詩를 情緒의 表現으로 보는 表現論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抒情詩의 경우 主觀的 情緒의 表現이기는 하지만 作品世界에 도입된 經驗이 지나치게 自己中心的일 경우 客觀性과 普遍性을 갖지 못한다면 詩로 산아날기 어렵게 된다. 앞의 네 作品에 나타난 바와 같이, Wordsworth의 詩는 상당히 主觀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浪漫詩는 대체로 詩人的 傳記的 事實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Cleanth Brooks가 Ode를 분석해 보인 바와 같이, 形式主義批評의 관점에서 作品은 分析하여도 충분히 깊은 理解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

나 순수한 형식주의비평의 안목을 가지고 낭만시물 읽을 경우 많은 것을 읽을 위험을 안고 있다. 傳記的事實이 어느 정도까지 作品 理解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개별작품에 따라 상대적이다. 수선화에 관한 詩의 경우 Wordsworth의 詩觀과 詩作過程 理論을 알고 읽을 때 보다더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Immortality Ode”의 경우 Curtis가 상세히 설명한 1802년의 정신적 위기는⁽³¹⁾ 제 1부의 crisis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傳記的事實을 아는 것이 作品의 이해에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는 없으며, 文學作品을 그 자체로서 완전한 有機的 全體로 보고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이 점은 浪漫詩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Wordsworth의 詩에 나타난 自然觀 및 人生觀은 人間 Wordsworth의 자연관과 인생관이라기 보다는 詩의 話者 또는 詩的 自我的 自然觀 및 人生觀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Tintern Abbey Lines”와 “Immortality Ode”는 Blake의 “순수의 노래”에 해당한다. 온갖 불협화음이 뒤섞인 人間社會로부터 멀리 떨어져 오직 自然親和를 통해 순수의 세계를 지킬려는 갈망이 나타나 있다. 自然과의 別離를 불안해 하며 永遠의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人生에 意味를 부여하려 했다. 自然은 그 속에 人間性과 神性을 내포하고 있어서, 때로는 유모 때로는 스승 때로는 神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Tintern Abbey Lines”에서는 主體와 對象이 하나가 되어 영적 세계를 보게되는 神秘的 經驗을, 그리고 “Immortality Ode”에서는 前生神話를 이용하여 人間存在의 時間的 連續性을 表現하려 했다. 그러나 “Elegiac Stanzas”에서는 한 人間の 죽음을 보고 과거의 vision을 부정하고, 人生의 空무를 겪은 다음 보다 더 넓은 人間條件에 대한 理解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Wordsworth는 Lucy poems나 Matthew poems 처럼 하나의 素材를 한 作品에 그치지 않고 여러 作品에서 취급함으로써 하나의 主題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Tintern Abbey Lines”, “Immortality Ode”, 그리고 “Elegiac Stanzas” 역시 동일한 主題의 發展과 變貌를 보여 주는 작품들이다.

또한 本稿에서 취급한 세 作品은 모두 回想過程

이 詩의 構成原理로 사용되어 있다. 回想은 自我와 世界를 理解하는 認識方法이기도 하다. 時間的 存在인 人間이 過去의 情緒를 回想하여 그 現在性을 찾고 自我의 同質性을 부여하는 詩的 方法인 것이다. 回想된 情緒는 항상 自然物과 結合하여 詩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Wordsworth의 詩에 나타난 poetic image들은 自然을 歪曲하지 않고 寫實的으로 묘사하고 있으면서도 詩的 情緒와 結合하여 소위 Eliot가 말한 “客觀的 相關物”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I wandered lonely...”에 묘사된 수선화의 춤, 호수의 물결, 그리고 은하수의 별들은 自然의 調和와 宇宙的 秩序의 image이면서 詩人의 意識에 침전되어 있는 과거의 情緒反應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Tintern Abbey Lines”의 Wye 강변 풍경묘사에서 조류의 대지와 절벽 그리고 하늘은 自然, 人間, 神의 世界의 unity를 象徵하는 이미지들이며, 自然과의 關係에 관한 回想에서 나타난 “sensations”, “feelings” 그리고 “blessed mood”와 유기적 연관은 맺고 있어서, 詩 全體에 unity를 부여한다. “Immortality Ode”에서 빛의 이미지는 작품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나 있어 詩의 論理的 構造를 鞏固하며, 태양, 달, 바다, 무지개, 강미, 별 등은 모두 빛의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象徵物이다. 특히 무지개는 이상의 빛의 변형이며 사라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visionary gleam”을 대표하는 이미지이다. 따라서 回想의 詩的 意義와 自然의 이미지들을 이해하는 것이 Wordsworth의 作品構造와 作品世界를 이해하는 關鍵이다.

Bibliography

- Bate, Walter Jackson. *From Classic to Romantic: Premises of Taste in Eighteenth Century England*. New York: Harper & Row, 1946.
- Bloom, Harold. *The Visionary Company: A Reading of English Romantic Poetry*. London: Faber and Faber, 1961.
- Bowra, Sir Maurice. *The Romantic Imagination*. London: Oxford Univ. Press, 1961.
- Brooks, Cleanth. *The Well Wrought Urn*:

(31) Jared R. Curtis, *Wordsworth's Experiments with Tradition: The Lyric Poems of 1802*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1971), pp. 3-4, 23-26참조.

- Studies in the Structure of Poetr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47.
- Cowell(ed.). *Critics on Wordsworth: Readings in Literary Criticism*.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3.
- Curtis, Jared R. *Wordsworth's Experiments with Tradition: The Lyric Poems of 1802*.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1971.
- Dress, Elizabeth. *Poetry: A Modern Guide to Its Understanding and Enjoyment*. New York: Dell Publishing Co., Inc., 1959.
- Durrant, Geoffrey. *William Wordsworth*.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69.
- _____. *Wordsworth and the Great System: A study of Wordsworth's Poetic Univers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0.
- Empson, William. *Seven Types of Ambiguity*. Beacon Books, 1930.
- Frye, Northrop. *A Study of English Romanticism*. New York: Random House, 1963.
- Hough, Graham. *The Romantic Poets*. New York: Norton & Company, Inc., 1964.
- Hartman, Geoffrey H. *Wordsworth's Poetry 1787-1814*.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64.
- Hutchinson, T. and Ernest de Selincourt (eds.). *Wordsworth: Poetical Works*. London: Oxford Univ. Press, 1969.
- Jones, Alun R. and William Tydeman(eds.). *Wordsworth: Lyrical Ballads*. London and Basingstoke: The MacMillan Press, Ltd., 1972.
- Poulet, Georges. *Studies in Human Time*, tr. Elliott Colema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6.
- Noyes, R. *William Wordsworth*. Boston: Twayne Publishers, Inc., 1971.
- Wellek, Rene. *Concepts of Criticism*.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63.